

## COVID-19 팬데믹 동안 재영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김희경\*\* · 문찬기\*\*\*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 로열홀러웨이대학교 법·범죄학과

본 연구는 COVID-19 동안에 영국의 한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영국에서 유학한 한국인 대학생과 대학원생 12명(남 6명, 여 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면담을 진행했다. Colaizzi의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개의 주제군과 4개의 범주도출되었다. 첫째 범주는 ‘중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한국인’으로, 한국인 유학생은 COVID-19 발생 전에도 영국에서 무시를 당하고 중국인으로 인식되었다. 둘째 범주는 ‘코로나를 퍼뜨리는 동양인’으로, 한국인 유학생은 COVID-19 동안에 경계와 기피의 대상으로 직접적인 차별을 받았다. 셋째 범주는 ‘어쩔 수 없는 감내’로, 한국인 유학생은 부당한 차별에 직접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불쾌한 감정을 참으면서 유학생활을 유지했다. 넷째 범주는 ‘장기 거주에 대한 기대 감소’로, 한국인 유학생은 COVID-19 동안의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졸업 후에도 영국에 남고 싶은 기대감이 줄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COVID-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한국인 유학생의 안전과 정신건강을 향상할 제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주제어: 사회적 낙인, COVID-19, 한국인 유학생

논문투고일(2023. 03. 30), 논문심사일(2023. 06. 01), 게재확정일(2023. 07. 01)

\* 본 연구는 『동신대학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으며, 2022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일부 내용이 포스터로 발표됨

\*\* 제1저자, 교신저자: 김희경/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kimhk@dsu.ac.kr

\*\*\* 제2저자: 문찬기/ 로열홀러웨이대학교/ 법·범죄학과/ 조교수/ chanki.Moon@rhul.ac.uk

## I. 서론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처음 보고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ronavirus Disease-19, COVID-19)는 초기에 우한 바이러스(Wuhan virus)나 중국인 바이러스(Chinese virus) 등으로 불렸다. COVID-19 발생 이후, 다수의 국가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비난과 모욕, 인종차별 및 혐오범죄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COVID-19 발생 초기에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중국인에 대한 기피와 혐오가 심해졌다(MBN, 2020.2.6). 유럽과 북미에서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 대한 집단폭행이 발생했으며(국민일보, 2021.2.26; 동아일보, 2020.7.9), 영국에서도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폭행이 있었다(연합뉴스, 2020.4.21). COVID-19 상황이 개선된 후에도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범죄는 계속되었다(YTN, 2023.1.9).

감염병의 위험이 있을 때는 특정 인종 집단에 대한 낙인이 심해진다(White, 2020). 낙인(stigma)은 고정관념(stereotype)이나 편견(bias)과 혼용되기도 하지만, 고정관념에 감정적인 반응이 더해진 편견과 차별 행동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이다(Penn & Martin, 1998). 지각된 사회적 낙인(perceived public stigma)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사회나 집단)로 인해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없다는 인식을 말한다(Corrigan, 2004). 이러한 정의들을 참조하면, 사회적인 낙인은 특정 사람이나 집단이 어떤 결함을 지녔다고 차별하는 것을 말하며, 지각된 사회적 낙인은 자신의 특징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유학생이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다고 여기는 것을 사회적 낙인 경험으로 보았다.

실증연구들은 COVID-19 발생 후에 북미와 유럽 등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COVID-19 대유행 초기에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의 41.6%가 아시아인을 차별한 것으로 나타났다(Dhanani & Franz, 2020). 특히, 중국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많았는데, 70여 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의 25%가 사회적 낙인을 경험했으며, 선진국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He et al., 2020). 이탈리아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COVID-19 발생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았

으며(Adja et al., 2020), 프랑스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은 학교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도 차별을 당했다(Wang et al., 2021). 대표적인 다인종 국가인 미국에서도 COVID-19 이전과 비교해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이 인종차별을 당한 비율이 3.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Ha et al., 2020).

사회적 낙인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정신건강 문제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 Lee와 Ahn(2011)의 메타분석에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과 정신건강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 차별은 아시아인의 불안(Cassidy et al., 2004), 우울(Rivas-Drake et al., 2008), 자살 생각(Hwang & Goto, 2008), 전반적인 심리적 고통(Clément et al., 2001)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차별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Lee, 2003) 및 긍정적 정서(Yoo & Lee, 2005)는 낮았다. 미국의 아시아계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지각된 차별감은 우울 수준과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Jung et al., 2007; Wei et al., 2008). 한국인 유학생만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드물지만,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한 요소로 지각된 차별감을 연구한 결과(이안나, 임성문, 2015; 이지연, 2014)에 따르면, 한국인 유학생의 지각된 차별감은 학업 및 심리사회적 적응, 우울감 등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 연구들은 한국인 유학생이 사회적 낙인을 경험했을 가능성을 시사하지만, 한국인 유학생을 아시아계 유학생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거나 설문조사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의 고유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COVID-19 발생 이후에 아시아인 유학생은 주류 사회에서 편견과 멀리함, 괴롭힘을 당했으며(Ma & Zhan, 2020), 우울,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과 같은 심리적인 문제들을 겪었다(Song et al., 2021). Lee와 Waters(2021)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과 아시아계 미국인의 30%가 증오 범죄, 미세차별, 간접차별 등의 인종차별을 당했고, 40% 이상이 불안과 우울, 수면 문제를 겪었으며,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다고 인식할수록 건강 문제도 심했다. 또한, 아시아인이나 마스크 착용자는 다른 인종이나 마스크 미착용자보다 지각된 차별 수준이 높았으며, 지각된 차별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했다(Liu et al., 2020).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전문적인 건강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의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한다(Li & Galea, 2020).

유학생은 COVID-19 동안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감염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했을 뿐 아니라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봉쇄 조치들로 인해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고립되었다. 또한, 비자 발급이 엄격해지고 기숙사도 폐쇄되면서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현지에 머무르기가 어려웠다.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유학을 지속한 중국인 학생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ong et al., 2021). 지역사회 내에서도 대인 간 교류와 접촉이 제한되었으며, 온라인 수업이 진행되면서 동료나 교수와 같은 중요한 주변인으로부터 지지를 받을 기회도 줄었다. 본국으로부터의 지원과 관심도 부족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은 COVID-19의 예방과 치료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국인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찾아야 했으며, COVID-19로 인한 고통과 걱정, 스트레스 등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했다(Jang & Choi, 2020). 영국의 중국인 유학생들은 COVID-19와 관련된 대학의 신속한 대응이 미비했다고 인식했다(Hu et al., 2020).

2020년에 해외에서 유학한 한국인 학생은 194,916명으로, 영국은 유럽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가장 많이 유학하는 국가이다(교육부, 2019; 교육부, 2020). COVID-19 발생 이후에 영국 유학을 취소한 외국인 학생의 수는 약 12만 명이며, 중국인 유학생이 40%를 차지했다(U' s Line, 2020.4.27). 이에 비해 2020년에 영국의 대학에 다닌 한국인 학생의 수는 3,300명으로, COVID-19 발생 전인 2019년보다 4.5% 증가했다(교육부, 2020). COVID-19 발생 이후에 아시아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증가했으며, 한국인 유학생이 인종차별적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감염병 상황에서 행해지는 사회적 낙인은 유학생의 신체적 안전과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의 내용과 그에 대한 대처, 사회적 낙인이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실증연구들은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인과 외모와 체격이 유사해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들이 어떤 사회적 낙인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주는 학술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COVID-19 상황에서 경험한 사회적 낙인의 심리 내적 현실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주요 연구 문제는 ‘COVID-19 동안에 영국의 한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은 무엇인가?’ 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COVID-19 동안에 영국에 체류하면서 유학 생활을 한 대학생과 대학원생이었다. 영국의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및 대학의 한국인 유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 연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다. 안내문에는 연구의 목적, 사회적 낙인의 정의, 신청 절차 및 연구 방법 등을 제시했으며, COVID-19 동안에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한국인 유학생이 신청 대상임을 명시했다. 온라인 신청서는 사회적 낙인 경험 여부에 대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총 26명이 신청을 했으며, 사회적 낙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유학생은 20명이었다. 이 중 거주 지역과 영국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해서 연구 목적에 맞는 풍부한 정보를 제공할 신청자를 선정하면서 포화 상태에 이를 때까지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최종적으로 12명이 심층 면담을 완료했으며,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 6명이었다. 이들의 나이는 23세부터 29세까지였고, 영국에 체류한 기간은 7개월~5년 2개월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노팅엄, 런던, 맨체스터, 버밍엄, 에든버러, 엑스터 등 6곳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참여자	성별	나이	학년	영국 입국	참여자	성별	나이	학년	영국 입국
1	여	24	4	2018년 9월	7	남	28	3	2018년 8월
2	여	29	석사과정	2017년 2월	8	여	25	3	2017년 8월
3	여	26	3	2017년 6월	9	남	27	2	2018년 9월
4	여	23	2	2021년 9월	10	남	24	석사과정	2018년 9월
5	여	26	석사과정	2021년 9월	11	남	22	2	2020년 12월
6	남	23	2	2018년 8월	12	남	25	3	2018년 8월

### 2.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고 면담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 연구 참여자로 선정된 유학생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 윤리적 고려 등이 기술된 설명문을 제공했고, 면담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의 자발성,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 비밀 유지를 위한 익명 처리, 면담 내용의 녹화 등에 관해 다시 한번 설명했다. 또한, COVID-19 동안의 사회적 낙인 경험에 관해 이야기할 때, 말하고 싶지 않은 경험이나 감정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안내했다. 면담은 가명으로 진행했으며, 면담 내용도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여 출처를 알 수 없게 했다. 본 연구는 기관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과제번호: 1040708-202111-SB-053).

### 3. 자료 수집

2022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온라인 화상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본인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면담에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참여하도록 요청했으며, 화상 면담에서 사생활이 드러나지 않도록 배경을 가리도록 안내했다. 온라인 화상 면담은 약 60분에서 90분 동안 개방적이고 반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코로나19 동안 영국에서 유학한 한국인 학생으로서 경험한 것에 관해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라는 일반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 후 ‘영국에서 유학하면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된 경험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코로나19 동안에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된 경험이 있습니까?’, ‘사회적 낙인을 경험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습니까?’, ‘사회적 낙인이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등의 질문을 하면서 참여자의 진술에 따라서 자유롭게 경험을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면담은 녹화했고, 녹음 자료는 축어록으로 전사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면담의 주요 내용 및 연구자의 생각 등을 메모했다.

### 4.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COVID-19 상황에서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했다.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은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과 의미를 기술하고, 인간의 경험에서 의식의

구조를 탐색한다(Polkinghorne, 1989). 본 연구는 COVID-19 동안에 영국의 한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을 이해하는 데에 목적이 있기에 연구 참여자 전체의 공통적인 속성을 도출하는 Colaizzi의 분석법(1978)을 사용했다.

전사한 자료는 Colaizzi의 절차에 따라 분석했다. 1단계에서는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사한 내용을 여러 번 읽었다. 2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서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여 의미 진술을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도출한 의미 진술을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로 바꾸어 의미를 재구성했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를 주제(theme)와 주제군(theme cluster)으로 분류하고, 주제군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범주화했다. 5단계에서는 주제와 주제군에 따라 경험의 의미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6단계에서는 주제들을 통합하여 경험의 공통적인 요소를 기술했다.

반성적 성찰과 참여자 확인, 동료 검토 등을 통해 자료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Creswell & Miller, 2000). 먼저, 전사한 내용을 여러 번 읽었으며,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메모하는 등 연구자의 가정과 신념,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둘째, 연구 참여자 일부에게 이메일을 보내서 분석한 자료의 내용이 그들의 경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셋째, 연구진이 분석한 자료를 검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했으며,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많은 상담심리 전공 교수에게 검토를 받았다.

### Ⅲ. 연구 결과

Colaizzi의 분석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COVID-19 동안에 영국에서 유학한 한국인 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은 표 6과 같이 44개의 주제에 10개의 주제군과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4개의 범주는 ‘중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한국인’, ‘코로나를 퍼뜨리는 동양인’, ‘어쩔 수 없는 감내’, ‘장기 거주에 대한 기대 감소’였다. 앞의 두 범주는 COVID-19 전후에 한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의 성격이며, 뒤의 두 범주는 각각 사회적 낙인에 대한 대처와 사회적 낙인의 결과를 보여준다. 범주별로 주제군에서 드러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한국인

연구 참여자들은 COVID-19 발생 전에도 동양인이라고 무시를 당했고, 영국 사회와 중국인에게 중국인으로 인식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이 중국인으로 오인되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었다.

### 1)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함

연구 참여자들은 동양인에게 무관심하고 동양인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영국인에게 답답함을 느꼈다. 이들은 길거리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들었고, 학교의 조별 활동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소외되어 서운했으며, 식당이나 술집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해서 불쾌했다.

친구들하고 저녁에 간단하게 술 마시고 막차 타려고 뛰어가는데, 10여 명 되는 흑인들이 발 걸어서 넘어뜨리는 시늉을 하면서 깔깔대고 웃더라고요. 어쨌든 뛰어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 밖에 있던 백인 할아버지가 창문을 막 두드리면서 썩큐라고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때 버스 안에 동양인은 저희만 있었거든요. (참여자 8)

어느 정도 어울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파티에 저희는 초대 안 했더라고요. 그중에 제일 친한 친구한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쪽 문화는 파티를 안 하는 줄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소외를 시키는 것이 어찌 보면 편견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불쾌했고, 동양 문화에 무관심하다고 느꼈습니다. (참여자 10)

### 2) 중국인으로 취급당함

연구 참여자들은 동양인을 중국인으로 싸잡아 대하는 영국인에게 짜증이 났으며, 한국인을 중국인처럼 대하는 중국인에게도 강한 불쾌감을 느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한국인이라고 밝혀도 중국인으로 대하는 것은 한국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무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길 가다가도 니하오라고 인사하고, 가만히 있는데 중국어로 인사하고, 중국어로 말 걸고, 제가 영어로 나는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고 해도 중국어로 얘기해요. 진짜 짜증났어요. 아니라고 하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제 얘기는 들리지도 않나 봐요. 제 말을 안 들으려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인인데, 한국은 아시아의 하나, 중국 국가 중 하나로 불리는 것도 너무 싫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도 너 영국의 잉글랜드 사람이라고 하면 화낼 거면서 왜 한국 사람들은 중국 사람 취급받거나 중국어로 말을 걸면 싫어할 거라고 생각 안 하는지. (참여자 5)



<표 2> 재영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

범주	주제군	주제
중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한국인	동양인이라고 무시당함	동양인에게 무관심하며, 동양인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아 답답함 식당 등에서 동양인이라고 무시하고 차별해서 불쾌함 길거리에서 갑자기 놀리거나 위협적인 언행을 해서 놀라고 화남
	중국인으로 취급당함	그룹 활동이나 사고 활동에서 소외되어 서운하고 속상함 동양인을 모두 중국인으로 싸잡아 대하는 영국인에게 짜증남 길거리 등에서 '니하오' 라고 놀림과 비웃음을 당해서 불쾌함 중국인이 다짜고짜 중국어로 말을 걸어와서 불쾌함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시끄럽고, 너무 많고, 어디에나 있으며 자기들끼리 어울림 일방적이고, 무례하고, 이기적이며 제멋대로임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며 영어를 못함 자기들의 문화를 고집하며 중화사상이 강함
코로나를 퍼뜨리는 동양인	경계와 기피의 대상이 됨	흘끔거리거나 뚫어지게 쳐다봐서 어이없고 억울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대놓고 소리치거나 욕을 해서 당황스럽고 놀라고 무서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유한 중국인으로 취급당해서 화나고 격정됨 음식점이나 펍의 출입을 거부당해서 억울하고 화남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계속 쳐다봐서 불편하고 눈치가 보임 동양인에게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해서 억울하고 화남
	포기함	더 큰 폭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맞대응하지 않음 유학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참음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음 심한 모욕이나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면 그냥 넘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체념함
어쩔 수 없는 감내	우회적으로 대응함	외출을 삼가고, 빨리 걷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며, 낯선 사람과 말을 안 함 영국인과 비슷한 옷차림을 하거나 몸을 건강하게 만들 중국인이 아니라고 말하거나 한국인임을 은연중에 드러냄 한국인 친구나 동양인 유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눔
	회피함	어리거나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여기고 상대하지 않음 혼한 일인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함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서 괜찮아진다고 생각함 바쁘게 지내거나 학업에 전념하면서 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함
장기 거주에 대한 기대 감소	영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뀌	글로벌하고 멋진 신사의 나라라는 환상이 깨짐 피부색과 외모 때문에 영원히 2등 시민일 수밖에 없음을 깨달음 원래 인종적 우월감이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차별을 당할 수 있는 나라임 위험에 처했을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생김
	위축되고 소외됨	동양인을 싫어할 것 같아서 그랩 과제나 활동에서 눈치를 봄 영국 친구들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가 조심스럽고, 교류가 줄어들 경계심이 증가하고 차별에 대한 피해의식이 생김 시간과 경험의 차이로 한국의 가족이나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움 엄격한 자가격리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기 어려워져서 고립감이 심해짐 유학생이 겪는 차별에 대해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함
	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함	신고해도 실제로 해결되는 것은 없음 상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됨 외국인 상담사가 공감해 줄 것 같지 않음 상담 우선순위에 밀림 상담이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중국인 취급하는 건 코로나 전부터 되게 좋아하지 않던 거예요. 그보다 더 별로였던 건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도 동양인을 무조건 중국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서관에 있는데 중국인이 와서 중국어로 뭘 물어봐요. 그럼 제가 영어로 나는 중국어를 못한다. 뭐 도와줄까라고 물어보면 그냥 가버려요. 여긴 영국이니까 최소한 영어로 말 걸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마치 당연히 중국인인 것처럼 중국어로 말하니까. 제가 처음 보는 동양인에게 당연하게 한국말 하지는 않잖아요. 자기네들 수가 많다고 동양인을 당연히 중국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봐요. 중국인으로 오해 받아서 기분이 안 좋다가보다 동양인은 중국인이라는 생각을 너무 당연시 하는 게 불편한 거죠. 무례하게 느껴지죠. (참여자 1)

그냥 딱 중국인으로 오해받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인종차별일 수 있겠지만, 저도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길거리를 걸으면 중국 사람들이 와서 중국어로 말을 걸어요. 여기는 영국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런 일을 몇 번 당하니까 너무 싫더라고요. (참여자 8)

### 3)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함

연구 참여자들은 중국인을 무례하고 노력하지 않으며 오만한 사람들로 인식했다. 유학 생활의 초기에는 중국인 유학생과 자주 어울렸지만, 나중에는 그들의 만남이나 교류가 줄어들었으며, COVID-19 이후에는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해졌다.

중국인들은 항상 남을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싸우듯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남 생각 않고 자기 이익만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과에 중국인 친구가 두 명 있었어요. 같이 점심 먹자고 해서 먹는데, 먹는 내내 자기들끼리만 중국어로 대화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인이 아니고 중국어 못하니까 영어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무안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럴거면 왜 같이 점심 먹자고 한건지. 그 후로는 그 친구들하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더라고요. (참여자 3)

그룹 과제에도 열심히 참여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수업하러 와서도 중국어만 쓴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그룹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참여자 4)

자기들끼리만 몰려다니고, 자기들끼리만 소통하고, 시끄럽다는 이미지가 있어요. 개네들

진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중국인으로 비취질까봐 걱정하기는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고 먼저 얘기해서 중국인으로 오해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중국인 친구들도 많거든요. 개들을 차별하거나 싫어했던 감정이 없었던 것 같데, 영국에 오고 나서 조금 더 심해지고, 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참여자 8)

## 2. 코로나를 꺼뜨리는 동양인

COVID-19 발생 이후에 연구 참여자들은 이전보다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을 당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중국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며, 그것에 대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느꼈다. 언론 보도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퍼진 동양인에 대한 혐오범죄 소식들은 이들의 두려움과 공포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했다.

영국에서 처음 확진자가 나왔을 때예요. 한국인 남자친구랑 저녁 포장하러 패스트푸드점에서 기다리는데, 옆에 있던 되게 어려 보이는 영국인 백인 여자에 두 명이 저희를 보자마자 손으로 밀어내면서 되게 놀란 듯이 대놓고 숨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웃으면서 ‘재네 치위!’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속상했죠. 화나고. 무섭기도 하고. 영국 언론에서 태국 학생 맞은 기사가, 코비드 혐오범죄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참여자 2)

2021년 2월에 델타 변이 확산됐을 때예요. 락다운이었지만 집도 알아보고 학업도 해야 해서 돌아다녀야 했어요. 도서관 가는데 어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저보고 손가락질 하면서 박쥐를 왜 쳐먹어가지고 니들 때문에 이게 뭐 난리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중국인이 아니고, 당신이 어떤 심정인지 안다. 근데 나도 중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피해자다. 나한테 이래봤자 너희들이 얻는 건 없다. 나한테 욕하면 기분이 좋냐고 했는데도 무시하고 더러운 중국인이라고 욕하면서 손가락 날리고 가시더라고요. 홈리스들이 중국인 니들 나라로 꺼지라고 한 적도 있고요. 어이없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참여자 7)

도서관에서 중국인 친구랑 공부하다가 그 친구는 먼저 가고 저는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친구가 앉았던 자리에 코비드 나인틴 차이니스 시트라고 써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슷한 동양인이니까 굳이 제 자리까지 다 쓸 필요는 없었고 그냥 그쪽에다 써놔던거죠. 제가 당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참여자 9)

학교 갈 때 버스를 타는데, 제 옆자리랑 앞자리 뒷자리는 아예 안 앉아요. 자리가 있어도 남겨놓고 서 있더라고요. 동양인이라는 이유죠. 코로나가 처음에 중국 쪽에서 엄청 심했으니까 아시아인들은 코로나를 가지고 있고, 아시아인들이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유독 중장년층 아저씨들이 약간 노려보듯이 쳐다보시더라고요. 직접 와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시선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버스에 앉아 있으면 앞을 보거나 창밖을 보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하는데, 완전히 상체를 돌려서 굳이 멀리 떨어져 있는 저를 계속 쳐다봐요. (참여자 12)

락다운 바로 직전에는 영국이 식료품점이나 바, 펍을 닫지 않았거든요. 동양 친구들이랑 펍에 갔는데 아시아인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는 보균자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나가라’ 고요. 그래서 제가 BRP를 보여주면서 나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고 했는데도 ‘모른다. 그래도 아시아인은 안 된다’ 라고 거절당했어요. (참여자 7)

런던 중심가에서 아시아인 친구들이랑 가는데 누군가가 저희한테 코로나라고 소리쳤어요. 마스크 쓰고 다니면 쳐다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뭐라고 하는 분은 거의 없지만, 시선 같은 게 엄청 느껴져요. 특히 지하철처럼 장시간 사람들과 있어야 되는 데나 학교에서. 그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눈치가 보였고. 신기한 게 백인 친구들이랑 다니면 저한테 크게 욕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동양인 친구들이랑 다니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10)

홍콩 친구들이랑 유명한 베트남 음식점에 갔어요.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백인들은 아무도 마스크 안 썼고 저희도 안 썼어요. 그때는 의무도 아니었고요. 종업원이 저희 앞 사람들한테 몇 명 왔냐고 물어보고 저희한테 와서는 그것도 묻기 전에 마스크부터 착용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앞에 백인들도 뻔히 마스크 안 썼는데 그들에게는 그런 말도 안 하면서 동양인인 저희한테만 그런거죠. (참여자 12)

### 3. 어쩔 수 없는 감내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을 당했을 때 신체적 안전이나 유학 생활에 대한 불이익 등을 염려해서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들은 사회적 낙인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나름의 방법들을 사용했지만, 사회적 낙인에 뒤따르는 불쾌한 감정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채 유학 생활을 유지했다.

## 1) 포기함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을 차별한 상대방에게 맞대응하면 더 큰 폭행으로 이어지거나 유학 생활에 불이익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았다. 이들은 단순한 욕설이나 놀림에도 불쾌감을 느꼈지만, 심한 모욕이나 물리적인 폭행이 아니면 그냥 넘겨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체념했다.

물리적인 폭력이 오갈 수 있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넘겼어요. 왜냐하면 만일 남자인데, 제가 화를 냈다면 저에게 더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차별을 당한 한국인이 똑같이 대응하려고 같이 욕하고 싸우다가 크게 다쳤다는 뉴스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면 무시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참여자 3)

어필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우리는 한국인이고, 중국에 간 적도 없고, 중국인이랑 접촉한 적도 없다고. 그래도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때 막 너무 화가 나는데,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여기에 영주권이나 시티즌십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여기서 트러블을 일으키면 비자를 잘리고 나가야 하고, 학업을 마친 상태로 못 나간단 말이에요. 참아야죠. 억울하고 분하지만. (참여자 4)

영국에서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여러 번 차별을 받았었고, 그런 경험 중에 특히 마음이 되게 아프고 상했던 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그런 경험에 비하면 웬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마음이 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이든 아니든 다른 한인이나 동양인 친구들이랑 어울릴 때 꼭 인종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편이었어요. 저에게 직접 피해 주거나 해를 가하는 게 아니니까. (참여자 1)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인종차별을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박혀 있는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거나 이 나라를 떠나거나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는 받아들이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인종차별을 하면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게 좀 큰 것 같고. (참여자 3)

그냥 가만히 있었죠. 외국인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사리게 되는 게 있거든요. 연고가 없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편하지 않아요. 왜 왔나 싶기도 하죠. 공부하러 온 거긴 하지만 굳이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죠. (참여자 9)

## 2) 우회적으로 대응함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낙인을 당하지 않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 낯선 사람과 접촉할 기회를 최소화하려고 했으며, 한국 물건을 사용해서 한국인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 동양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차별로 인한 불쾌한 감정을 해소하려고 했다.

예전에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서 공원을 걷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필수적인 거 외에는 밖에 안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건덕지를 안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을 몇 번 겪고 나서 저만의 룰을 세운 게 있는데, 저녁에 안 나가고 사람들이 많은 길로만 다니는 것이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해가 지고 나서 어둑어둑한 시간에 술을 마시기도 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린이들 장난처럼 받아들였는데, 그 후에는 한낮이나 사람들이 많더라도 인종차별이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혼자 외출하는 걸 삼갔던 것 같아요. (참여자 7)

웬만하면 길거리나 어디서나 사람들하고 소통 안 하려고 해요. 언제 대뜸 인종차별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거리에서 좀 더 빨리 걷는 다거나 퍼블릭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 같은 거를 안 하고 누가 말 걸어도 친절하게 답해주기보다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요. (참여자 3)

중국애들이랑 좀 다르게 보이고 싶어서 한국에서처럼 안 입고 영국 애들처럼 옷을 입는단지도 해요. 한국이나 아시아인 쇼핑보다는 일부러 여기에서 대중적인 샵에 가서 옷을 사고요. 헤어스타일도 한국 남자애들처럼 앞머리를 덮거나 가르마를 타지 않고 여기 애들처럼 짧게 자르고요.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이 다 영국계 친구들이니까 무작정 끼어달라기보다는 튀고 싶지 않다는 느낌으로. (참여자 6)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오래 살아서 아이패드나 맥북 같은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예쁘고. 그래서 계속 써오다가 코로나 터지고 다 삼성 걸로 바꿨어요. 노트북, 태블릿, 핸드폰 다. 노트북에 태극기도 붙이고 다녀요. 뉴스라도 좀 보거나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으면 우리나라 국기 정도는 알거든요. 도서관이라든지 카페에서 랩탑 쓸 때 나 중국인 아니니까 제발 니하오라고 하지 말라고 은연중에 차단하려는 거죠. 내가 한국인이라고 드러내고 싶다고보다는 중국인이 아니란 걸 표현하려는 거죠. (참여자 9)

한국인 유학생들이랑 얘기하고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랑

비슷한 환경에 처한 사람이 나뿐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일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내가 느끼는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친구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걸 확인하니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4)

여기 있는 동양인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편하죠. 얘기하면 안 한 것보다 낫기는 하죠. 같이 화내고 감정적으로 공유해주면 좀 낫긴 한데, 해소는 안 되죠. 이미 당한 일이고, 잘 안 잊혀지고, 제 머릿속에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더라고요.(참여자 7)

### 3) 회피함

연구 참여자들은 차별에 직접 대응하거나 차별로 인한 불쾌한 감정에 직면하기보다는 차별한 사람들을 평가 절하했고, 차별당한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고 했으며, 일부러 바쁘게 지내거나 학업에 전념했다.

그때 나에게 인종차별 했던 여자애들은 뭔가 교육받은 느낌으로 안 보였어요. 옷도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슬리퍼 끌고 오고요. 그래서 말해도 안 통할 것 같아요. 배운 사람들은 말을 알아들을 것 같으면 조목조목 설명해서 창피를 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둘한테는 말하면 오히려 피곤한 일만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바보들이구나 하고 상대 안 했어요. 물론 무시하고 넘어가도 마음은 안 편하죠. (참여자 2)

살다가 화나면 나중에 잊는 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중국 유학생이든 한국 유학생이든 인종차별을 당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당하면 그냥 우리가 참아야지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긴 해요. 얘기해 봤자 그냥 그 자리를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끝나기는 하지만. (참여자 9)

락다운 때는 주위에 들어온 외국인이 없었고, 거의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서 술 한잔하고, 영화도 보면서 최대한 빨리 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과제도 미리 당겨서 다 해버리고요. (참여자 7)

## 4. 장기 거주에 대한 기대 감소

연구 참여자들은 COVID-19 동안에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면서 영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고, 졸업 후에도 영국에 머물려고 했던 애초의 기대치

가 낮아졌다. 사회적 낙인에 대한 주변의 지지나 영국과 한국 정부 및 대학으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도 이들이 영국에 오래 머물고 싶은 생각을 줄어들게 했다.

### 1) 영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연구 참여자들은 COVID-19 동안에 경험한 사회적 낙인을 계기로 영국 사회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고, 소수 인종의 현실을 깨달았다. 이들은 COVID-19로 인해 영국인의 인종적 우월감이 드러났다고 보았으며, 위협에 처했을 때 영국 사회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세계에서 가장 글로벌한 나라고, 신사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지금은 코로나지만, 몇 년 뒤에 다른 게 올 수도 있고 다른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더 지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더 나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확실히 환상이 깨진 것 같아요. (참여자 3)

신사의 나라이긴 한데 아시아인들한테는 신사가 아니죠. 그때 이후로 보니까 아시아인이라는 인종 자체를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교육을 해서 인종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해도 표현은 안 하지만 인종적인 우월감이 기본적으로 내재돼 있고, 코로나로 인해 자기네 국민이 죽어나가고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그냥 밖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7)

처음 올 때는 한국이 숨 막히고 싫어서 여기서 졸업하고 취업해서 살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는 여기서 2등 시민이고, 언제까지나 2등 시민일 수밖에 없고, 영주권 따고 정말 좋은 직장에 취업해도 법이나 시스템 밑에서 우선이 아닐 거라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학위 마치면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코로나 때 경험이 크게 결정을 바꾼 계기였어요. 좀 시니컬하게 말하면 코로나는 익스큐즈를 준 것 같아요. 인종차별은 항상 있어왔으니까요. 항상 다양한 형태의 혐오나 배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내놓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 준 것 같아요. 그들에게. (참여자 2)

그전에는 졸업하고 기회가 된다면 일을 해볼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여기서 더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지내고 싶지 않아요. 전혀. 인종차별을 당하고 나서 영국에 있을 생각이 없어진 거죠. 제가 영국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영주권을 받든 시민권을 받든 저의 바깥 외형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도 분명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거



라고 생각해서 더 있고 싶지 않아졌어요. (참여자 9)

코로나 전에도 인종차별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긴 했지만, 적어도 나쁘다는 인식은 있었거든요. 소위 배웠다는 사람들은 문제라는 걸 아니까 절대 내놓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 발언이나 폭력을 당했다면 주변 영국 시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믿음이 전에는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후에는 그 사람들도 저를 경계할 거라고 느껴지는 거죠. 아무리 선진국이고 여기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학교에 속해 있는 학생인데도 이 나라 법, 치안 시스템이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무력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2)

## 2) 위축되고 소외됨

연구 참여자들은 COVID-19 동안에 사회적 낙인을 경험하면서 동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었으며, 피해의식과 주변에 대한 경계심도 증가했다. 이들은 한국의 가족이나 친구들과 사회적 낙인 문제에 관해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했으며, 한국 정부로부터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그 후로 더 눈치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는 주에 한두 번 뺨에 갔다면 이후에는 안 가거나 한번 가는 식으로 줄였어요. 괜히 눈치가 보이는 거죠. 동양인이 가면 그다지 안 좋아할 것 같고. 위축되다 보니까 수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과에서 필드 트립을 가야 하는데, 서양인, 영국인 친구들에게 프로젝트에 껴도 불편한 거 없냐고 미리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쌓이다 보니까 개들이 안 좋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영국에 있어야 될 이유를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영국이라는 나라에 조금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더 멀어진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9)

항상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 너무 피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때 퍼블릭에 있을 때는 경계가 명확하죠. 누가 나한테 무슨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라는 리스크로부터의 경계인데, 언제부터가는 그냥 릴렉스하게 있어도 되는 편한 상황에서도 뭔가 경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길을 걸을 때도 사람이 지나 가면 괜히 그 시선에 대해 경계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시선으로 낙인을 찍을 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시선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참여자 2)

한국은 자가격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했었잖아요. 심지어 백신을 다 맞아도 똑같이 10일 내지 14일을 해야 해요. 4주 가는데 2주 자가격리를 하는 것 때문에 여기 남아

있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영국 생활이 정말 힘들어질 때도 있고, 인종차별 같은 걸로 지쳤을 때 한국 가서 친구들과 만나고 가족이랑 시간 보내면 많이 리프레시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백신을 맞은 한국인들에게 좀 예외를 줘서 좀 더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참여자 6)

### 3) 제도적 지원의 실효성이 부족함

연구 참여자들은 영국 정부나 소속 학교에서 제공하는 지원이 사회적 낙인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차별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해도 실제로 해결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았으며, 상담을 신청하는 절차도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이용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 상담사가 동양인의 차별 문제에 공감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으며, 상담은 물리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정신장애처럼 심각한 경우에만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진행이 더 안 됐어요. 폭행이 실질적으로 가해지지 않았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인종차별 키워드 같은 게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거구의 경관 두 명이 조사한다고 거의 무장 차림으로 기숙사로 들어오니까 경계심이라고 할까, 잘못된 게 없는데 웬지 겁주는 느낌. 피해 사실, 인적 사항을 최초 신고부터 세 번이나 되풀이했고요.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럽고,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소문날 거고, 경찰이 계속 들락날락하니까 학생들 사이에서도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보다고 지레짐작할 수도 있고요. (참여자 11)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을 설명해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해하는 것처럼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제가 좀 뼈뼋하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이해하는 척하면 화도 좀 날 것 같고요. 너는 모르잖아. 네가 어떻게 알아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기 사람한테는 회의적이에요. (참여자 2)

서비스가 있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부킹하고 가서 상담하는 것까지는 생각 못해 본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가나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이 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때서야 한번 고려를 해볼 것 같아요. (참여자 4)

인종차별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고, 학교에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접근성이 안 좋아요. 시간도 따로 어레인지 해야 되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애

기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고요. 효과에 대해 의심스러운 게 제일 컸고요. 카운슬링을 한다고 정말 내가 도움을 받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참여자 6)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정신건강이 예전과 동일한지 상담 받아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종차별 문제도 문제지만, 특히 초기 봉쇄 때는 한 두 달간 사람들도 전혀 못 만나고 산책도 못나가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웠고, 가장 피폐해졌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도 여러 번 봉쇄되면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제약되고, 학교 같은 데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니까 정신적으로 압박됐고. 가족이라도 같이 있으면 대화할 수 있는데, 완전히 혼자 따로 있으니까 상대가 전혀 없고, 나가지도 못하니까 답답함이 가중됐던 것 같아요. 학교에 문의해봤는데, 한국인이나 다른 소수 인종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인 영국 백인들도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NHS도 아주 심각한 정신적인 질환이나 고통을 앓는 분들, 자살 충동 같은 것이 있는 분들한테 상담이 집중되는 상황이어서 저처럼 비응급인 경우는 신청하고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안 받겠다고 했어요. (참여자 10)

#### IV.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동안에 영국에서 유학한 한국인 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을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의 본질적 구조는 ‘중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한국인’, ‘코로나를 퍼뜨리는 동양인’, ‘어쩔 수 없는 감내’, ‘장기 거주에 대한 기대 감소’로 나타났다. 각 범주의 주요 의미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인 ‘중국인과 구별되지 않는 한국인’은 영국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의 자기 인식을 나타낸다. 한국인 유학생은 COVID-19 전에도 영국에서 무시당하고 중국인으로 인식되었다. 이들은 서양인이 한국인을 중국인으로 오인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중국인이 아니라고 해명해도 중국인으로 대하는 것에 짜증이 났다. 특히, 이들은 중국인에게 중국인으로 취급받는 것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감정은 “니하오를 당했다.”나 “니하오라는 인사만 들어도 싫다.”라는 표현에 잘 드러난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인정받지는 못해도 무례하고 노력하지 않으며 오만한 중국인과 하나로 묶이기 싫다는 태도를 보여준다. 중국인으로 취급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중국인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은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보인다.

둘째 범주인 ‘코로나를 퍼뜨리는 동양인’은 COVID-19 동안에 한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의 내용이며, 동양인에 대한 영국 사회의 인식과 태도를 보여준다. 한국인 유학생은 COVID-19 이전에도 놀림이나 무시를 당했지만, COVID-19 발생 후에는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차별을 당했다.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경계와 기피의 대상이 되었으며, 부당한 요구를 받았다. 이러한 사회적 낙인의 내용과 방식은 COVID-19 동안에 중국인이 경험한 것(Adja et al., 2020; Dhanani & Franz, 2020; He et al., 2020; Wang et al., 2021)과 흡사하다. 중요한 점은, 한국인 유학생이 중국인과 유사한 외모로 인해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Ha 등(2020)의 추정을 확인한 것이며,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에 대한 감정의 원천을 보여준다. 이들이 중국인으로 인식된 것은 COVID-19 이전에도 있었다. 그때의 주된 감정이 불쾌감이었다면, COVID-19 이후에는 억울함과 분함이 두드러졌다. 즉,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인과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이 비슷해서 바이러스 보균자로 부당하게 차별받았다고 느낀 것이다.

첫째와 둘째 범주에서 공통적인 현상은 한국인 유학생의 중국인에 대한 강한 부정적 인식과 반감이다. 이러한 현상이 COVID-19 국면에 특수한 것인지 또는 다른 국가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보편적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영국의 한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김현경, 2011)에서 이 주제가 인종차별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던 점을 참고하면, COVID-19 이전부터 한국인 유학생이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을지라도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다. COVID-19 동안에 동양인에게 행해진 사회적 낙인뿐 아니라 언론 보도와 SNS로 퍼진 동양인에 대한 폭행 소식도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화시켰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인 유학생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서양인의 편견이나 차별과 같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인식이 중국인으로 취급당했을 때 느끼는 불쾌감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했다. 국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은수, 허난설, 2022)에서 대학생들은 중국인에게 인종차별적 표현을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혐오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인에 대한 태도와 감정에 윤리적인 갈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인 유학생이 중국인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몇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인과 교류하면서 부정적인 일을 많이 경험했을 수 있다. 연구 참여자들은 유학 생활 초기에는 중국인 유학생과 자주 어울렸지만, 나중에는 만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만일 영국 사회에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혐오, 배제, 차별 등의 사회적 낙인이 존재한다면, 한국인 유학생의 중국인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인 유학생의 경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영국인의 인식과 태도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인보다 영국 사회에서 소수자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데서 오는 자존감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영국에 있는 중국인의 규모나 중국어의 성조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인의 일부 특성(예를 들면, 시끄럽고, 어디에나 있으며,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들은 전술한 특징들이 한국인의 중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라고 생각했다(진사선, 2019). 이는 양자 간에 오해나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며, 그 차이의 근원을 밝히고 상호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심리학적 연구와 개입 프로그램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범주인 ‘어쩔 수 없는 감내’는 한국인 유학생이 사회적 낙인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보여주며, 영국 사회에서 이들이 처한 현실을 시사한다.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차별을 가한 상대방에게 항변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더 큰 폭행이나 유학 생활에 대한 불이익을 염려해서 참았다. 이들은 차별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바쁘게 지내면서 학업에 전념하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양상은 Dong 등(2023)의 연구에서 나타난 방식과 일부 유사한데,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한 아시아계 유학생들은 “바쁘게 지내기(stay busy)” 전략을 통해 학교 및 일상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이는 다인종 국가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사회적 낙인에 직접 대응하지 못하고 불쾌한 감정을 억누르면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COVID-19 동안에 영국에서 학업을 유지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 이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한국으로 귀국한 유학생의 경험은 보여주지 못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들이 이어진다면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한국인 유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개인 내적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밝히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범주인 ‘장기 거주에 대한 기대 감소’는 사회적 낙인의 결과를 보여

준다. COVID-19 동안의 사회적 낙인은 한국인 유학생의 영국 사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의 사회적 낙인은 한국인 유학생을 두렵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위험한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할 것이며 주류 사회에 속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게 했다. 이들은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불쾌감부터 고립감, 소외감, 우울감, 무력감까지 많은 문제를 겪었지만, 영국 정부나 소속 대학으로부터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고, 한국 정부로부터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영국에서는 상담 서비스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며, 한국의 매우 엄격한 자가격리 기준 때문에 귀국하지 못한 채 영국에서 물리적, 심리적으로 고립된 상태에 처했다. 선행연구에서도 지각된 차별 경험은 유학생의 한국행을 생각하게 하는 요인이었다(김현경, 2011).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결과에 더해 COVID-19 동안의 명시적인 사회적 낙인과 그로 인한 심리사회적 어려움, 실효성이 부족한 제도 등도 유학생의 태도 변화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는 COVID-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감염병의 위협과 사회적 낙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들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먼저, 유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경이 통제되면 유학생은 사실상 해외에 고립되고, 사회적 낙인의 대상이 되면서 신변의 안전이 위협해질 수 있다. 요건을 갖춘 유학생에게는 국내 입국이나 자가격리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국경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현지에서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신속하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낙인의 심리사회적 결과를 줄일 수 있는 전문적인 상담 개입 프로그램들을 연구하고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낙인과 그에 뒤따르는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 대처법 등을 다루고, 사회적 낙인 경험의 심각도에 맞게 차별화된 접근이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다. 사회적 낙인으로 인해 정신장애 등의 심리적 문제를 겪는 유학생에게는 한국에서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인 유학생은 외국인과의 상담에서 언어적인 한계를 느끼며, 차별 문제에 대해 공감받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등지에 한국인 유학생이 분포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온라인 기반의 개입 프로그램들이 접근성을 높이는 데에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영국의 한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의 본질에 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을 이해할 수 있는 사회과학적 연구들이 매우 빈약한 현실에서 본 연구는 추후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다. 특히, COVID-19라는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병 상황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의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유사한 상황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유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사회적 낙인을 경험한 이후에 불안이나 우울 등의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겪은 유학생의 내적 경험은 보여주지 못한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들이 이어져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독일,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유학하는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교문화적 연구를 통해 사회적 낙인 경험이 국가나 민족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인 유학생과 다른 국가의 유학생이 경험한 사회적 낙인의 내용이나 의미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이어진다면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인 유학생의 사회적 낙인 경험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낙인을 찍는 사람의 경험은 살펴보지 못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사회적 낙인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맥락을 밝히기 위해서는 낙인을 찍는 사람의 경험에 관한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9). 2019년 국외 고등교육기관 내 한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  
&s=moe&m=0309&opType=N&boardSeq=79010](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79010)
- 교육부(2020). 2020년 국외 고등교육기관 내 한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  
&s=moe&m=0309&opType=N&boardSeq=82917](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350&lev=0&statusYN=W&s=moe&m=0309&opType=N&boardSeq=82917)
- 국민일보(2021.2.26). “북한서 휴가를” “코로나같은” 獨방송 BTS 인종차별 논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77569&code=61131611&cp=nv>
- 김현경(2011). **다인종 캠퍼스 유학생들의 다문화적 태도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영국의 한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동아일보(2020.7.9). 프랑스서 韓유학생, 인종차별 집단폭행으로 중상, 한인사회 ‘슬렁’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709/101897802/1>
- MBN(2020.2.6). 신종 코로나 공포에 덩달아 중국인 혐오 기승.  
<https://www.mbn.co.kr/news/world/4045794>
- 연합뉴스(2020.4.21). 코로나19로 커지는 외국인 혐오 영국 한인유학생도 폭행 당해. <https://www.yna.co.kr/view/AKR20200421000600085>
- YTN(2023.1.9). 아시아인 대상 ‘혐오범죄’ 주의.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50&key=202301092127282106>
- U' s Line(2020.4.27). 코로나19 중국 유학생 급감 영국 대학 휘청 대학 3/4 재 정심각 영향권.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15384>
- 이안나, 임성문(2015). 재캐나다 한국인 대학생의 지각된 차별감과 우울의 관계: 대처양식 및 문화 정체성과 이중문화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 511-534.
- 이은수, 허난설(2022). COVID-19 팬데믹 이후 중국인 혐오표현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 **주관성 연구, 60**, 77-100.
- 이지연(2014). **한국인 해외유학생의 자아탄력성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사선(2019). **캠퍼스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차별경험: 개념도 방법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ja, K. Y. C., Golinelli, D., Lenzi, J., Fantini, M. P., & Wu, E.(2020). Pandemics and social stigma: Who's next? Italy's experience with COVID-19. *Public Health*, **185**, 39-41.
- Cassidy, C., O' Connor, R. C., Howe, C., & Warden, D. (2004).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 of personal and ethnic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 329-339.
- Clément, R., Noels, K. A., & Deneault, B.(2001). Interethnic contact, ident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roles of communic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57**, 559-577.
- Colaizzi, P. E.(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S.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pp. 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orrigan, P.(2004). How stigma interferes with mental health care. *American Psychologist*, **59**, 614-625.
- Creswell, J. W., & Miller, D. L.(2000). Determining validity in qualitative inquiry. *Theory Into Practice*, **39**, 124-130.
- Dhanani, L. Y., & Franz, B.(2020). Unexpected public health consequences of the COVID-19 pandemic: A national survey examining anti-Asian attitudes in the US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5**, 747-754.
- Dong, F., Hwang, Y., & Hodgson, N. A.(2023). "I have a wish": Anti-Asian racism and facing challenges amid the COVID-19 pandemic among Asian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Journal of the Transcultural Nursing Society*, **34**, 115-122.
- Ha, S. K., Nguyen, A. T., Sales, C., Chang, R. S., Ta, H., Srinivasan, M., Chung, S., Palaniappan, L., & Lin B.(2020). Increased self-reported discrimination and concern for physical assaul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in Chinese, Vietnamese, Korean, Japanese, and Filipino

- Americans. *Public and Global Health*. doi:10.1101/2020.09.15.20194720
- He, J., He, L., Zhou, W., Nie, X., & He, M.(2020). Discrimination and social exclusion in the outbreak of COVID-19.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 2933.
- Hu, Y., Xu, C. L., & Tu, M.(2020). Family-mediated migration infrastructure: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and parents navigating (im) mob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hinese Sociological Review*, *54*, 62-87.
- Hwang, W.-C., & Goto, S.(2008). The impact of perceived racial discrimination on the mental health of Asian American and Latino college students. *Asian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1*, 15-28.
- Jang, I. C., & Choi, L. J.(2020). Staying connected during COVID-19: The social and communicative role of an ethnic online community of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Multilingua*, *39*, 541-552.
- Jung, E., Hecht, M. L., & Wadsworth, B. C.(2007). The role of identity in international students' psychological well-being in the United States: A model of depression level, identity gaps, discrimination, and accultu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1*, 605-624.
- Lee, D. L., & Ahn, S.(2011). Racial Discrimination and Asian Mental Health: A Meta-Analysi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9*, 463-489.
- Lee, R. M.(2003). Do ethnic identity and other-group orientation protect against discrimination for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133-141.
- Lee, S., & Waters, S. F.(2021). Asians and Asian Americans' experiences of racial discrimin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Impacts on health outcomes and the 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Stigma and Health*, *6*, 70-78.
- Li, Y., & Galea, S.(2020). Racism and the COVID-19 epidemic: Recommendations for health care worker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10*, 956-957.
- Liu, Y., Finch, B. K., Brenneke, S. G., Thomas, K., & Le, P. D.(2020).

-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mental distress amid the COVID-19 pandemic: Evidence from the understanding America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9**, 481-492.
- Ma, Y., & Zhan, N.(2020). To mask or not to mask amid the COVID-19 pandemic: How Chinese students in America experience and cope with stigma. *Chinese Sociological Review*, **54**, 1-26.
- Penn, D. L., & Martin, J.(1998). The stigma of severe mental illness: Some potential solutions for a recalcitrant problem. *Psychiatric Quarterly*, **69**, 235-247.
- Polkinghorne, D. E.(1989)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In Valle, R. S., Halling, S. (Eds.) *Existential-phenomenological perspectives in psychology* (pp. 41-60). Springer, Boston, MA.
- Rivas-Drake, D., Hughes, D., & Way, N.(2008). A closer look at peer discrimination, ethnic ident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urban Chinese American sixth grade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7**, 12-21.
- Song, B., Zhao, Y., & Zhu, J.(2021). COVID-19-related traumatic effects and psychological reactions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Epidemiology and Global Health*, **11**, 117-123.
- Wang, S., Chen, X., Li, Y., Luu, C., Yan, R., & Madrisotti, F.(2021). ‘I’m more afraid of racism than of the virus!’ : Racism awareness and resistance among Chinese 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in Fran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uropean Societies*, **23**, S721-S742.
- Wei, M., Ku, T. Y., Russell, D. W., Mallinckrodt, B., & Liao, K. Y. H.(2008). Moderating effects of three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depressive symptoms: A minority stress model for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 451-462.
- White, A. I.(2020). Historical linkages: Epidemic threat, economic risk, and xenophobia. *The Lancet*, **395**, 1250-1251.
- Yoo, H. C., & Lee, R. M.(2005). Ethnic identity and approach-type coping as moderators of racial discrimination/well-being relation in Asian America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 497-506.

-Abstract-

## **Experiences of Social Stigma of Korean Students in the UK during COVID-19 Pandemic**

**Kim, Heekyung · Moon, Chanki**

**Dongshin University · Royal Holloway, University of London**

This study aimed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social stigma experienced by Korean students in the UK during COVID-19. Onlin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2 Korean students (6 males and 6 females) who studied in the UK between 2017 and 2021. As a result of data analysis using Colaizz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method, 12 clusters of themes and 4 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 first category is 'Koreans who are indistinguishable from Chinese,' and Korean students were ignored and mistaken for Chinese by British society even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The second category is 'East Asians spreading COVID-19,' and Korean students were directly discriminated against as objects of caution and avoidance during COVID-19. The third category is 'no choice but to endure,' and Korean students did not directly resist unfair discrimination, but endured unpleasant feelings and continued their studies. The fourth category is 'reduced expectations for long-term residence,' and social stigma during COVID-19 has reduced Korean students' expectations of remaining in the UK after gradu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nstitutional and professional interventions are needed to improve the safety and mental health of Korean students studying abroad in a global pandemic situation such as COVID-19.

**\* Key Words: Social Stigma, COVID-19, Korean Students**